정말 '앞에 가는 사람 도둑놈'이네

(사무엘상 18:1~30)

1.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2.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3.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4.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5.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6.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정말 앞에 가는 사람 도둑놈이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정말 앞에 가는 사람 도둑놈이네'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다방구 놀이를 할 때에 술래가 상대를 잡으려고 할 때에 도저히 못 잡겠으면 서서 하는 말이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 뒤에 가는 사람은 순~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앞에 가는 사람이 일등이고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꼴등인데도 이 말을 들으면 주춤하게 됩니다. 이 말이 우스갯말이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드러내 줍니다. 경쟁에서 패배자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기심의 발로라고 표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혁명적 변화를 묘사하는 말이 됩니다.
'도둑놈'이라는 말을 불리한 위치에 서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괄목할 만한 혁명적 변화들 중에 한 가지를 묘사하기에 적절한 표현인데 바로 시기심과 질투에 관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질투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는 이웃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갖지 못해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갖고 있어서 슬픈 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자세히 보면 뚜렷한 구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질투란 이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만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심은 이웃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그도 망해서 나처럼 돈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결국 두 마음 모두가 자기 파괴적이지만 질투는 내가 가진 자의 위치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고, 시기심은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끌어내려서 나처럼 없는 자의 자리에 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치들의 유무에 따라서 질투심이든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가지다와 못 가지다의 역학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가지다와 못 가지다에 얽힌 인지상정, 상식, 논리가 혁명적으로 뒤집어져서 질투와 시기는 악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질투와 시기가 생기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질투와 시기에 매여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지다와 못 가지다의 의미를 변화시키신 것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구원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마19:21절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9~30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라는 말은 앞에 간 사람은 놀이에서 도둑놈이 되듯이 불리해지고 나중 된 사람은 순경이 되듯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상 전체와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 속에서 ‘가지기’ 경주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버리기’ 경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이전의 경주에서 일등하던 자들이 불리해졌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침을 흘리던 가치들을 많이 가졌던 자들이 앞서가던 자들이고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버리기 경주로 바뀌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버리기가 힘들고 적게 가진 사람들이 버리기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하시고 21장 31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하십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전의 경주에서 앞서 달려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껏 풍부하게 가졌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경주로 바뀌자, 가진 것이라고는 죄인이라는 이름밖에 없었던 뒤에 있던 자들이 일등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버리기 자체가 최종목표는 아닙니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최종목표가 하나님 갖기인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가지는 것을 경주하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마음으로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가지기 경주에 들어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부터 다 버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20평인데 사돈의 집은 100평짜리 으리으리한 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20평짜리 집이나 100평짜리 집이나 모두 버려야만 하는데 누가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20평짜리를 가진 내가 버리기가 더 쉽습니다. 이제까지는 100평짜리 집을 가진 사돈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갖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심이 전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갖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정상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만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시점에서는 100평짜리 집을 가진 사돈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게 될 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세 사람이 나옵니다. 현재 왕인 사울과 그 맏아들인 요나단,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게 된 다윗을 한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사울 왕보다 더 극심한 시기심으로 다윗을 견제해야 될 처지에 있었던 자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사라면 다른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는데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온 백성의 입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가장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내가 하지 못한 골리앗을 죽였으므로) 다윗을 견제해야 하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라고 합니다. 어제 다윗의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단순하게 단 한가지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 세상의 대상

이나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었는데, 요나단도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현실로 모시고 살기를 원했던 자였기에 마음이 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형제나 친척보다도 마음이 더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현실로 모시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저는 타인을 생명처럼 사랑해 본적이 없지만 이 느낌만은 알 수 있습니다. 시기가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다윗에게도 왕위를 '가지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왕위를 주신 것도 '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왕위를 버려야 하고,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식을 버려야 하고, 사장님이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체를 버려야 합니다. 사업체를 주신 이유는 사업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신 이유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버리기 경쟁에 뛰어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을수록 덜 중요할수록 버리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경주를 충분히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왕위가 주어져봤자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하나 더 생길 뿐이라고 알았기에 왕위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못해서 버려야 될 왕위를 굳게 붙잡자 시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누구에게도 왕위를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버리라'고 주셨고 다윗에게도 이후에 버리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고 요나단에게도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태자의 자격과 권한을 '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요나단은 버렸지만 사울 왕은 왕위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강요받은 적 없는 지옥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울 왕의 위치에서 바라보면 사울에 대한 동정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굳힙니다. 모든 군인이 사심 없이 기뻐할지라도 왕만큼은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20살도 안 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데 나는 대체 뭘 했는지에 대한 꺼림칙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으니 저나 여러분이나 사울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되었는데 마음이 너무 깊이 왕위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토가 없는 자는 없으니 안 버려도 됩니다. 결혼을 못해서 남편이나 아내가 없으면 버릴 것이 하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버려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없다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가지기가 목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내게 없는 것은, 그

만큼 유리한 지점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감사해야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깊은 내용을 아는 자들은 많이 가졌을수록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걱정해야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장동건 씨 정우성 씨 고소영 씨 김태희 씨 등 이러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를 3등신이라고 놀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것이 저의 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닫는 것은 장동건 씨나 정우성 씨는 힘들겠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주셨어도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외모가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정우성 씨가 자기 외모를 버리는 것과 3등신인 제가 외모를 버리는 것은 난이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이 외모로 돈을 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필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우성 씨는 그 외모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버리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일어난 비밀이고 혁명적 역전인 것입니다.

본래 사울의 기업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져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바로도 요셉을 총리 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을 기뻐했고, 요나단도 하나님의 사람을 형제로 얻고 친구로 얻은 것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신하로 얻었으면 기뻐해야 했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못하고 불필요한 시기심에 사로잡힙니다.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크게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다윗의 생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20세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첫 번째 기도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는데 본래 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왕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왕 자리를 포기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만을 따르겠다는 기도인 것입니다. 왕 자리에 서서 왕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는 것인데 다윗이 한 일도 이러한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받았지만 왕위를 마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대할 때에도 왕이 될 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나로 대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로 삼고 블레셋 전장으로 보내서 죽이려하고 창을 던지고 별 음모를 꾀하더라도, 사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인데 지혜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왕 자리에 있는 사울과만 갈등을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되어서 왕 자리와 화합하면 안 되고 왕 자리에 대해서만 지금처럼 갈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계시입니다. 끊임없이 왕 자리를 버린다면 다른 모든 일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교육시키시고 계십니다.
사장님이라면 사업체와의 갈등을 유지하며 계속 버려야 합니다. 엄마 아빠라면 자식과의 갈등

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계속해서 자식을 마음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라면 목회와의 갈등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갖기 위해 목회를 계속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육체까지도 마음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축복이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앞에 가는 사람이 도둑놈'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더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마음에 들여놓을 만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 갖기 경주에서 일등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